이웃 위한 자비행으로 상월결사 1년 회향

만행결사 자비순례단, 11월 11일 1주년 기념식 개최

1년 간의 상월결사 정신 되새기고 베트남 · 탄자니아 · 병원구급차 지원 자비순례 결산보고… 9682명 동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진 왼쪽은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동참한 순례단 스님들과 불자들이 완보증서와 순례기록을 담은 사진첩을 받는 모습. 사진 오른쪽은 상월결사 1주년을 맞아 결사대중이 각계에 지원금을 전달하는 모습이다.

오직 부처님 법대로 살기 위해 은산철벽을 치고 들어간 위례 상월선원에서의 90일간 용맹정진, 그리고 이어진 만행결사 예비순례와 자비순례, 11월 11일 상월결사 1주년을 맞아 상월선원 결사대중들이 한자리에 다시 모였다. 자비순례에서 쌓인 반가움을 나눔도 잠시 결사대중은 우리 사회의 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그 원력을 회향했다.

상월선원 결사대중은 11월 11일 서울 봉은사 옆 더라빌웨딩홀에서 상월결사 1주년을 기념한 '불교중흥 국난극복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 사부대중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만행결사 자비순례 511km를 완보한 69명의 결사대중과 자원봉사자 등 외호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상월선원 천막결사를 되돌아보는 영상 감상, 신간 〈상월선원〉 소개, 천막결사 · 만행결사 예비순례 · 만행결사 자비순례 사진전 소개 등 식전행사와 완보증서 및 감사패 전달, 사회 이웃을 위한 회향마당, 결산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공헌' 결사정신 실천

특히 이날 행사는 자비순례 중 답도한 보시금을 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회향의 마당으로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후 결사대중이 헌혈로 회향하고 공양금을 모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외계층 마스크 전달에 나섰던 의미를 되짚기 위함이었다.

먼저 한국과 베트남 우호 증진을 위해 베트남 농촌학교 해우소 건립기금이 전달됐으며, 아름다운동행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지원금, 스노우보드 국가대표 정해림 선수에게 해외전지훈련 지원금, 동국대일산병원에 구급차 구입 지원금을 전달했다. 또 불교음악원과 불교언론사들에게도 발전기금이 전달됐다.

행사서는 자비순례 회향 기념으로 62명의 완보자들과 자원봉자자들에게 완보증서와 사진첩도 함께 수여됐다.

완보증서는 회주 자승 스님이 순례단원들에게 직접 수여했으며 이어 자비순례 당시 순례단에 따뜻한 차를 보시한 만오 박치호 불자와 명선다례원에 감사패를, 김범수 BTN제작본부 부국장에게 공로패도 전달됐다.

사부대중 '불교중흥 계기' 소감

행사선 순례의 소감도 다양하게 나왔다. 비구 스님을 대표해 무상 스님은 "포교가 되고 힘이 되는 순례라는 걸 느꼈다. 승려생활 중 가장 값진 수행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순례 도중 지역민들과 불자들이 뜻을 함께해주는 걸 봤을 때 힘이 났다. 그 힘으로 무사히 순례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비구니 스님을 대표해 유승 스님은 "순례서 행복했고 회향하는 순간 너무 아쉬웠다. 어렵고 힘든 순례의 수행길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의 원력이 함께했기 때문이었다"며 "앞으로 매 순간마다 간절한 힘과 원력으로 제 직분에 맞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바새를 대표해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은 "복이 너무 많아 취임식 다음날 순례단에 합류할 수 있었다. 금호강 안개 속 장엄한 행렬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중흥이 무엇인지 확인했고, 27대 중앙신도회는 이 불교중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바이를 대표해 최고령자 이채순 씨는 "동화사에서 텐트에서 잤는데 춥고 떨렸다. 당시 아홉 스님 어떻게 견디셨을까 하면서 각오가 더 생겼다. 잘 걷지도 못했는데 도반들이 보살펴주어 회향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前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결사가 불교사상을 실천하는데 활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힘들었지만 부처님 발자취를 좇는다고 생각했다. 완보까지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사부대중이 함께해 가능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불교가 새롭게 실천하는 기회가 되고 불자임을 자부하는 신심의 발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로노인복, 온오프 경연대회로 新노인문화 주도

11월 10일 '시니어 슈퍼스타' 트로트 주제 10개 팀 본선전 유튜브 등으로 2000명 참여

'할담비' 지병수 어르신의 뒤를 이을 '종로의 트롯신'을 선발하는 어르신 경연대회가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주도로 열렸다. 11월 10일 복지관서 진행된 '2020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는 '종로의 트롯신을 찾아라'를 주제로 한 본선전으로 치러졌다.



시니어슈퍼스타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경연대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장 인원을 50명으로 최소화하는 대신,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적극 활용한 온라인 응원단 운영 등 '온오프믹스' 방식을 채택해 비대면 경연대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다.

경연대회는 예선 에피소드 메이킹 필름 상영과 힐링뮤지컬 아모르파티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됐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낙연 국회의원과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의 영상 인사, 여봉무 종로구의장의 축사, 관장 정관 스님의 인사말을 끝으로 본격적인 경연이 시작됐다. 심사위원은 배우 현석 · 정혜선, 정관 스님,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 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은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이 맡았다.

이번 경연은 예선 단계부터 온오프라인 방식을 동시 활용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예선전은 개인 영상을 찍어 SNS로 제출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했으며, 영상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개별 촬영과 영상 업로드를 개별적으로 도왔다. 예선 6: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본격적인 경연이 진행되는 동안, 무대 스크린에는 집과 복지관 등에서 유튜브를 보며 각 팀을 응원하는 온라인 응원단의 열정적인 모습이 이어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경연결과는 10팀의 공동 1등. 심사위원들은 "힘든 국난의 시기, 자랑스러운 선배시민의 모습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쳤다는 점에서 모두가 1등의 자격이 있다"며 만장일치로 공동수상을 결정했다.

정관 스님은 "이번 경연대회는 '할담비'를 배출했던 역사적인 무대이기도 하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면 좋았겠지만 처음 시도하는 온오프믹스 방식으로 예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어 더 큰 감동이었다"며 "선도적으로 신노인의 면모를 보여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인생은 60세부터라는 말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며 감사를 전했다.

한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종로인권모니터링단은 의료진과 소방관에게 감사와 응원을 담은 편지와 간식을 전했다. 이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주최하는 '코로나를 이기는 노인자원봉사' 영상공모전에 활동영상을 제출하여 금상을 수상했다. 송지희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센터 준공식

마음건강 학습으로 선과 명상 치유 문화 대중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가 지난 12일 오후 2시 선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 스님,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주낙영 경주시장,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최소 규모로 진행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센터는 연면적 2천 500㎡, 761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3개의 선방을 갖춘 선수행동을 비롯하여 공양동과 부속건물로 교내 사찰인 정각원과 온방골 연못을 마주한 곳에 조성됐다.

선센터는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보유한 교육 연구 역량과 지역 불교 역사 문화 유산을 기반으로, 마음건강 교육과 참선, 명상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준비하여 내년 봄 개원할 예정이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경주캠퍼스 선센터는 대한불교조계종 종립대학으로서 우리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또 하나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선센터가 경주캠퍼스 구성원은 물론이고, 경주를 비롯하여 영남 지역의 불교도와 지역민이 함께 향유하고, 안심(安心)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은 "선센터는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제공할 것이다. 지역에서는 명상, 체험을 통해 힐링의 명소가 되어 명상 치유 문화의 대중화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